

문화전당 주변경관 관리 용역 최종보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9일 광주시 동구 벵처빌딩 7층 회의실에서 '문화전당권 경관관리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전당 주변 건축물의 고도 제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당 1km 이내 건축물 고도 제한”

거리 구분 권역별 조망권 확보해야  
인근에 트윈타워 세워 랜드마크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문화전당 주변에는 앞으로 고층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금남로 인근에 문화전당을 상징할 '트윈타워'를 세워 랜드마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역에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1km 이내에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전당의 조망권을 살릴 수 있도록 낮은 층수로 유도하고 있다.

최 실장은 “경관보호선을 적용한 계단형 배치와 랜드마크형 고층화는 문화전당 설계 의도를 살려 개방감을 확보하고 장소적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다이내믹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시각적 리듬감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날 최종보고회 내용과 토론회를 반영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전당의 추진 목적도 성취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을 마련해 광주시에 권고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식품부, J 프로젝트 부지 ‘알박기’  
전남도 “인근에 같은 사업...” 압박

도 ‘농식품 물류기지’ 조성 방안 발표...신경전 기열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 간척지에 농어업회사를 조성하는 계획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영산강 간척지 일대가 농지임대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적고 목포 신뢰성이 인근에 있어 중국·일본으로의 수출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가 '글로벌 농·식품 물류기지' 개발계획 내용을 농식품부 사업과 비슷하게 했으면서도 사업 부지를 산이 2-1공구가 아닌 인근 마산지구 등 다른 간척지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새시대 도약 모멘텀 만들 것”

후대통령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신년리셉션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당면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통해 한국은 도약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기집행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며 “그리하여 빠른 시일내 경제회복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늘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투자는 역동적 한국시장을 선점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각 투자자들에게 위기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주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한나라 2월 임시국회서 처리

한나라당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 관련 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인건, 고양,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 16개 시를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주택 구입 시 5년 보유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한시 면제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기로 당론을 모았다.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SAFA advertisement for office chairs.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lack office chair with a mesh backrest. Text includes 'SAFA', 'SAFA SF-01', and '조이케젤 SF-01'.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other chair models and descriptive text in Korean.